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내면적 증세에 미치는 영향: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

이 혜 승¹⁾

이 순 형²⁾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이혼부모의 양육변수가 자녀의 바람직한 적응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임을 가정하고 이혼 가정 부모가 양부모가정 부모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이혼을 경험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혼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양부모가정 부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가정 부모는 양부모가정 부모에 비해 민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정도가 낮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령기 아동이 스스로 지각한 내면적 증세의 경우 이혼가정 아동은 우울정서, 흥미상실, 자기 비하의 정도가 양부모가정 아동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가 평가한 불행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체로 이혼가정 아동은 양부모가정 아동에 비해 학습문제, 대인관계문제, 행동문제 등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이는 부모의 이혼 그 자체보다는 이혼한 부모의 낮은 부모효능감과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 저하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을 높이고 부모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및 상담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부모효능감, 부모역할수행, 문제행동, 내면적 증세, 이혼가정

* 이 논문은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37-DA0038)

1) 교신저자: 이혜승,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E-mail: hlee06@hanmail.net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 서 론

최근 5년간 통계청 및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의 저하, 핵가족의 증대, 이혼및 편부모 가정의 증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1990년 1.1건이었던 조이혼율(인구천명당)은 98년에 대폭 상승한 후 2001년에는 2.8건으로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으며 미국의 4.7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유럽의 일반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 이혼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지향 등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혼사유는 대부분 부부불화(75.2%)이나 경제문제(10.8%)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남녀 모두 35-39세이며 이혼당시 70.4%에 달하는 부부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부의 연령을 볼 때 학령기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과거의 태도는 바뀌고 있다고 한다(한국가족학회, 2003).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 우리나라보다 보편화된 미국에서도 아동기에 겪는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정서적·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진다(Amato, 2000). 더구나 유교문화와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가족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보다 수용적인 미국의 경우보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부정적일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Gilman, Kawachi, Fitzmaurice, & Buke, 2003; Hetherington, Briges, &

Insabella, 1998; Leon, 2003; Mazur, Wolchik, Sandler, & West, 1999), 연구에 의하면 이혼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일생에 있어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의 하나라고 한다(Drapeau, Samson, & Saint-Jacques, 1999;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또한 부모의 이혼에 따르는 가족기능의 약화와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적응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이들의 연구는 이혼가정의 아동들이 양부모가정의 아동들보다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약하고 사회적 책임성이 낮으며 인지능력과 성취도도 뒤떨어진다고 한다. 더욱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및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는 자녀들에게 우울증, 분노,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기에 겪은 부모의 이혼이 성년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다(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Pett, Turner, Vaughan-Cole, & Wampold, 1999).

Heatherington, Cox와 Cox(1982)는 부모가 이혼한 유년기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이혼가정의 부모는 양부모가정의 부모에 비해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형태를 보였다고 한다. 이혼가정의 부모는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애정표현을 잘하지 않으며 훈육방식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 반항적이고, 까다롭게 행동하며 독립심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들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자기통제가 어렵고 따라서 양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 안정적인 주변 상황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Wallerstein(1985)은 많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양육을 들고 있다. 이혼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대화가 부족하며 자녀의 요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Warshak와 Santrock(1983)의 이혼한 편모가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반응은 자녀의 인성, 발달 단계 및 성별, 부모의 양육방식, 비동거 아버지와와의 접촉여부, 동거모의 경제 상태 및 사회적 지지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한편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과제에 덜 충실하고 높은 텔레비전 시청률을 보이며 양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 부모와 같이하는 활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Dreman, 2000).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부모의 이혼으로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들간에 뚜렷이 일치되는 점이 없으나, 학령기 아동의 경우 남자는 여아보다 부모의 갈등에 더 영향을 받고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외면적 증세(externalized symptom), 내면적 증세(internanlized symptom) 및 대인 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이론을 종합하면,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받는 영향은 이혼한 부모의 양육형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가정의 자녀와 양부모가정의 자녀가 어떠한 다른 행동과 심리적 적응을 보이는지 보다 이혼한 부모가 실제로 어떠한 양육형태를 통하여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혼을 선택하는 부모와는 달리 비자발적으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이로 인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의 연구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이 자녀에 주는 영향이나 자녀들의 적응에 대한 고찰(정현숙, 1993; 황옥자, 1980), 상담아동 등을 통한 임상적 사례 연구(주소희, 2002)나 편부모 아동의 인성에 대한 연구(김정삼, 1990), 편모가정의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연구(고성혜, 한유진, 1995; 정현숙, 서동인, 1998)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혼가정의 아동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김보경, 2001)이나 이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비교(지은선, 2002)에 대한 연구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유연성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서지영, 2002)가 나오고 있으나 이혼가정의 부모와 학령기 아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이는 이혼율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이혼을 숨기려 하는 가족의 태도와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따른 연구의 어려움도 작용했으리라 보고여진다.

부모의 이혼이 어떤 경로로 자녀에게 미치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Hetherington, Briges와 Insabella(1998)는 다섯 가지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녀의 개인적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어떤 아동은 부모의 이혼에 따라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어떤 아동은 잘 적응해 나간다. 둘째, 부모의 부재로 인한 통제 부족이 학습성취도의 저하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혼부모와 자녀들의 복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넷째, 이혼한 부모의 정신 건

강 상태가 자신감 있고 효율적인 부모역할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째, 가족 기능의 약화와 가족 관계의 불화, 강압적인 양육방식 등이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상의 연구와 이론을 종합해보면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받는 영향은 이혼부모의 양육형태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체로 이혼한 부모는 여러 가지 상황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지치기 쉽고 자신이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잃기 쉽다. 이혼한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잃고 바람직한 부모 역할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자녀는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부모가 직접적인 양육행동을 통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결정하는 신념(parental beliefs)이나 사고 체계에 대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Goodnow, 1988; Sigel, McGillicuddy-deLisi, & Goodnow, 1992). Miller (1988)는 아동발달이나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모든 사고를 부모신념(parental beliefs)이라고 정의하였다.

부모로서의 효능감(parental efficacy)은 부모신념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자녀가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과 과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기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1997). 다시 말하면 부모효능감은 부모 스스로 자녀의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효능감은 바람직한 부모역할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양육행동과 여러 변수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 효능감 이론은 Bandura(1977)에 의해 제창되었으며, 특정 행위를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부모역할분야에서 효능감을 갖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과 양육행동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감, 아동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협조적일 것이라는 믿음 등이 있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부모효능감은 효과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 요소라고 한다.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실제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단순하지 않으나 상황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Bandura, 1995) 이혼한 편모가정이라는 가족구조에서 어머니의 효능감이 높을 때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와 이론을 살펴보면 이혼이라는 위기 상황을 겪는 부모에게 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며 이혼 부모의 역할수행을 결정짓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보여진다.

이혼부모의 양육변수가 자녀의 바람직한 적응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여겨지는바 본 연구는 이혼가정의 부모가 양부모가정의 부모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이혼을 경험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가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둘째,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이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과 내면적 증세(우울증, 근심등)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학령기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과 내면적 증세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5개교에서 4학년과 6학년 담임교사 60명에 의해 선정된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아동 388명을 대상으로 부모 및 아동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을 선정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부모설문지에 응한 358명의 부모 중에서 해당자녀와 동거하며 양육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는 26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에서 아버지가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8명, 6.8%) 실제 분석에는 어머니가 응답한 248부만을 사용하였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129명이 양부모가정, 119명이 이혼가정의 어머니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37.9세이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 8.6%, 고졸 37.1%, 전문대 재학 이상이 54.3%로 나타났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39.5%, 사무직, 서비스업, 자영업이 47.6%, 관리직 및 전문직이 12.9%로 밝혀졌다.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응답자 연령과 경제적 수준(연간 수입)은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아동은 남아 130명(52.4%), 여아 118명(47.6%)으로 남아가 약간 많았고 4학년 아동이 111명(44.8%), 6학년 아동이 137명(55.2%)으로 6학년 아동이 다소 많았다.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초등학교 아동 및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척도가 영문을 번안한 질

문지인 점을 감안하여 질문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대상자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알아보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 부모의 연령, 직업, 가족 구조, 교육 정도, 경제적 지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혼한 부모의 경우 이혼한 연도와 비동거부모와의 관계 등을 질문지를 통해 부모로부터 알아보았다.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양육을 맡고 있는 동거부모가 작성하고 양부모가정의 아동은 부모중 한사람이 작성하되 응답자와 주된 양육담당자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하게 하였다.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질문지는 부모가 작성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질문지는 아동의 담임교사가, 내면적 증세에 관한 질문지는 아동 자신이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부모효능감 측정(부모용)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 문항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효능감 척도(The Parent Self-Agent Scale;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국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측정한 결과 .74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수행 측정(부모용)

부모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Block의 자녀 양육 척도(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 1981)에서 뽑아낸 27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을 사용한다(Kochanska, 1990). 문항들은 민주적인(authoritative) 부모역할수행과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부모역할수행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적 독립성의 강조, 애정 표현, 합리적인 지도, 권위적 통제,

자녀 감독,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이 $\alpha = .81$,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이 $\alpha = .72$ 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 측정(교사용)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행동 및 정서 측정 질문지(Behavioral and Emotional Rating Scale; Epstein & Sharma, 1998)를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였다. 아동이 학교내에서 하는 행동 전반에 대한 관찰이 가능한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의뢰함으로써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총 45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질문지의 내용은 학습문제, 대인관계문제, 행동문제, 불행감, 신체적 증세(통증, 공포 등), 사회적 부적응·비행 등 6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에게 적합하지 않은 질문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부적응·비행’ 요인을 제외한 5가지 세부요인이 사용되었고 질문지는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alpha = .67$ 에서 .89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내면적 증세 측정(아동용)

학령기 아동이 보이는 우울증이나 근심 등의 내면적 증세(internalized symptoms)를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1)가 개발한 아동용 우울검사(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세에서 13세의 아동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미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표준화되었고 연구 결과 높은 내적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총 27개 문항 중 내면적 증세를 나타내는 우울정서, 흥미상실, 자기 비하의 3

가지 하위 영역 항목(16개 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우울정서’는 아동이 느끼는 우울한 기분이나 외로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고 ‘흥미상실’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갖고 있는지, ‘자기 비하’는 아동 스스로 느끼는 무가치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각 영역 별 신뢰도는 우울정서의 경우 $\alpha = .84$, 흥미상실의 경우 $\alpha = .70$, 자기 비하의 경우 $\alpha = .77$ 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4학년과 6학년 각 6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총 60개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담당 학급의 아동 중에서 이혼가정의 아동과 양부모가정의 아동 선택과 질문지 배포를 요청하였다. 요청 받은 담임교사는 자신의 반에서 동일한 수의 이혼가정 아동과 양부모 가정 아동을 선택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교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아동과 부모용 설문지는 함께 아동에게 전달하고 아동과 부모가 각각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직접 부치도록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의 아동 선택에 따른 표집 오차를 줄이고자 학급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예비조사 결과 아동 수가 많아 교사의 관찰과 설문지 작성이 어렵고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교사의 선택에 의한 4-10명의 아동(동일한 수의 이혼가정 아동과 양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가 선정한 아동은 총 388명으로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교사설문지 388부, 아동설문지 369부, 부모설문지 358부로 나타났다. 부모설문지에 응한 358명의 부모 중에서 해당자녀와 동

거하며 양육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가 응답한 248부만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PC 11.0을 이용하였다. 각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알아보고 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등의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의 비교

이혼가정 부모와 양부모가정 부모가 지닌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혼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M=31.24$, $SD=3.95$)이 양부모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M=35.53$, $SD=3.93$)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8.59$, $p<.001$).

또한 부모역할수행도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부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혼가정의 경우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 점수가 양부모가정에 비해 낮았고($p<.001$)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 점수는 양부모가정에 비해 높았다($p<.05$). 표 1은 각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및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혼가정 부모와 양부모가정 부모가 지닌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이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에 있어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 4에 제시된 양부모가정은 민주적 부모역할수행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F=181.45$, $p<.05$). 또한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모두 권위적인 부모역할수행에서만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혼가정 $F=3.95$, $p<.05$, 양부모가정 $F=5.12$, $p<.05$).

표 1.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

종속변수	이혼가정 (N=119)		양부모가정 (N=129)		<i>f</i>	<i>t</i>
	<i>M</i>	<i>SD</i>	<i>M</i>	<i>SD</i>		
부모효능감	31.24	3.95	35.53	3.93	246	-8.59***
부모역할수행: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	55.02	3.80	57.06	3.42	246	-4.46***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	43.50	4.81	42.32	3.39	210.1	2.23*

*** $p<.001$, * $p<.05$

표 2. 성별·학년에 따른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

	이혼가정				양부모가정			
	남		여		남		여	
	4학년 (n=26)	6학년 (n=32)	4학년 (n=22)	6학년 (n=39)	4학년 (n=33)	6학년 (n=39)	4학년 (n=30)	6학년 (n=27)
부모효능감	31.08 (4.32)	30.28 (3.14)	31.27 (3.97)	32.10 (4.23)	36.67 (4.12)	34.67 (3.50)	36.27 (3.71)	34.60 (4.20)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	54.77 (3.82)	55.81 (4.11)	55.09 (3.83)	54.49 (3.55)	57.61 (3.05)	57.59 (2.94)	56.37 (4.07)	56.41 (3.62)
권위주의적 부모역할수행	45.04 (6.28)	43.13 (4.66)	42.00 (2.81)	43.64 (4.55)	43.33 (3.46)	41.21 (3.12)	42.23 (3.79)	42.78 (2.83)

(괄호안은 표준편차)

표 3. 성별·학년에 따른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 이혼가정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부모효능감	성별	28.90	1	28.90	1.54
	학년	0.01	1	0.01	.00
	성별×학년	18.77	1	18.77	1.21
민주적 부모역할수행	성별	7.15	1	7.15	.37
	학년	1.37	1	1.37	.07
	성별×학년	19.27	1	19.27	1.32
권위주의적 부모역할수행	성별	45.19	1	45.19	.50
	학년	.53	1	.53	.01
	성별×학년	89.73	1	89.73	3.95*

표 4. 성별·학년에 따른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 양부모가정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부모효능감	성별	1.78	1	1.78	2.12
	학년	106.87	1	106.87	120.07
	성별×학년	.84	1	.84	.06
민주적 부모역할수행	성별	46.43	1	46.43	18.145*
	학년	.05	1	.05	.18
	성별×학년	.03	1	.03	.02
권위주의적 부모역할수행	성별	1.77	1	1.77	.03
	학년	19.86	1	19.86	.35
	성별×학년	56.55	1	56.55	5.12*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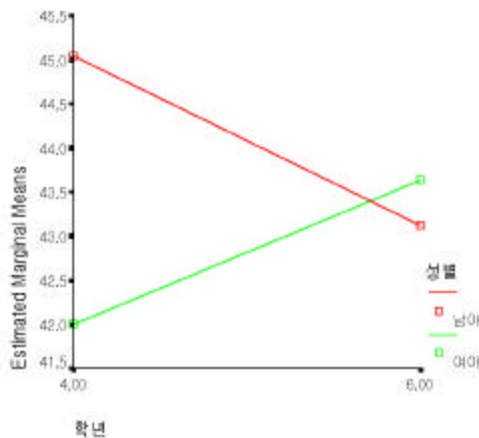


그림 1. 성별·학년에 따른 권위주의적 부모역할수행: 이혼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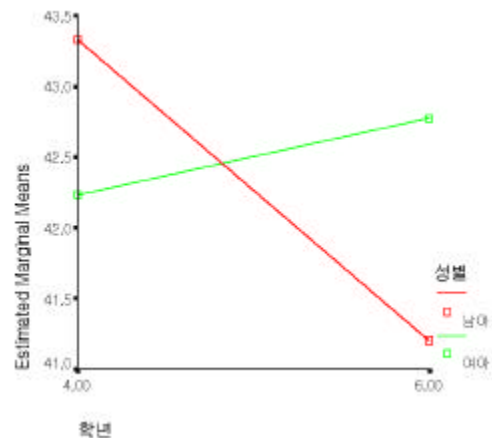


그림 2. 성별·학년에 따른 권위주의적 부모역할수행: 양부모가정

평균점수를 보면 이혼가정의 경우 남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점수가 낮아졌지만 여아는 이와 반대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양부모가정의 경우, 남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점수가 낮아졌지만 이혼가정과 달리 여아의 점수는 큰 차이가 없다(그림 참조).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과 내면적 증세 비교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학령기 아동이 교사가 평가한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에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아동이 스스로 지각한 내면적 증세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습문제와 대인관계문제에 있어 두 집단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혼가정 아동은 양부모가정 아동에 비해 학습과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가정 아동이 보이는 우

울증세($p < .01$)나 행동문제($p < .05$)도 양부모가정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신체적 증세의 측면은 두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면적 증세에 있어 이혼가정 아동은 양부모가정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우울정서, 흥미상실, 및 자기 비하 정도가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양부모가정 아동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가정 아동의 자기 비하 점수가 양부모가정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교사가 평가한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과 아동이 지각한 내면적 증세의 세부요인과 합계에 대한 t-test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학령기 아동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교사가 평가한 문제행동과 정서적 적응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에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아

표 5.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과 내면적 증세

종속변수	이혼가정 (N= 119)		양부모가정 (N= 129)		df	t
	M	SD	M	SD		
학습문제	10.10	1.64	9.49	1.27	246	3.31***
대인관계문제	9.97	1.23	9.30	1.21	246	4.39***
행동문제	9.85	1.27	9.48	1.21	246	2.34*
불행감	9.80	1.25	9.36	1.33	246	2.70**
신체적 증세(통증, 공포 등)	9.55	1.25	9.40	1.16	246	.94
내면적 증세 합계	11.13	1.84	10.37	1.50	246	3.55***
우울정서	3.10	.82	2.88	.68	246	2.28*
흥미상실	4.98	.94	4.74	.83	246	2.20*
자기 비하	3.05	.80	2.76	.74	246	2.98***

*** $p < .001$, ** $p < .01$, * $p < .05$

표 6. 성별 · 학년에 따른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과 내면적 증세

	이혼가정				양부모가정			
	남		여		남		여	
	4학년 (n= 26)	6학년 (n= 32)	4학년 (n= 22)	6학년 (n= 39)	4학년 (n= 33)	6학년 (n= 39)	4학년 (n= 30)	6학년 (n= 27)
학습문제	10.23 (1.11)	9.66 (1.29)	9.95 (1.21)	10.46 (2.25)	8.91 (1.16)	9.67 (1.11)	9.40 (1.22)	10.04 (1.43)
대인관계문제	10.12 (1.37)	9.75 (1.24)	9.95 (1.13)	10.08 (1.20)	9.15 (1.09)	9.23 (1.35)	9.23 (.97)	9.63 (1.36)
행동문제	9.77 (1.18)	10.28 (1.49)	9.68 (1.04)	9.64 (1.20)	9.70 (1.19)	9.59 (1.14)	9.53 (1.25)	9.00 (1.24)
불행감	9.73 (1.34)	9.53 (1.30)	9.86 (1.13)	10.03 (1.21)	9.33 (1.38)	9.15 (1.31)	9.33 (1.27)	9.70 (1.35)
신체적 증세 (통증, 공포 등)	9.19 (.98)	9.06 (.95)	9.60 (1.33)	10.15 (1.35)	9.40 (1.03)	9.23 (1.20)	9.53 (1.20)	9.52 (1.22)
내면적 증세 합계	10.98 (2.30)	11.00 (1.48)	11.14 (1.52)	11.30 (1.99)	9.88 (1.56)	10.77 (1.44)	10.60 (1.40)	10.15 (1.46)

표 7. 성별·학년에 따른 아동의 내면적 증세합계: 양부모가정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내면적 증세합계	성별	0.08	1	0.08	.01
	학년	1.52	1	1.52	.11
	성별×학년	14.26	1	14.26	6.63*

* $p < .05$

아동의 각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양부모가정 아동의 내면적 증세합계점수만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치는 표 7에 나타나 있다($F=6.63$, $p < .05$). 구체적으로 그림 3은 양부모가정의 남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면적 증세점수가 높아졌지만 여아는 이와 반대로 약간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이 상승하면서 남아는 우울 정서, 흥미상실, 자기비하 합계점수가 높아지나 여아는 연령상승과 함께 미세한 감소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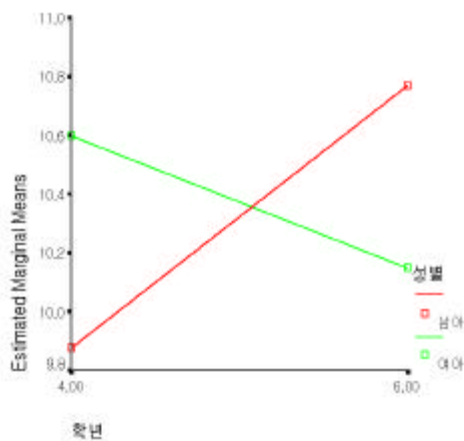


그림 3. 성별·학년에 따른 아동의 내면적 증세합계: 양부모가정

부모의 이혼,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과 내면적 증세에 주는 영향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교사가 평가한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과 아동이 지각한 내면적 증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한 부모의 연령, 교육 수준, 경제적 지위(연간 수입)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회귀모형에서 제외되었다. 각 단계 별로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민주적 부모역할수행과 권위주의적 부모역할수행)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모형의 설명력과 각각의 변수가 지닌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부모의 이혼여부는 Dummy 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방정식에 사용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학습문제의 경우 부모의 이혼은 첫 단계에서 단독설명변수로 회귀모형에 포함되었을 때는 강한 영향을 지니나($\beta = .206$, $p < .001$)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 등 부모양육 변수가 함께 포함된 모형을 보면 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beta = .119$, NS). 표 8을 보면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학습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민주적 부모역할수행($\beta = -.198$, $p < .01$)만이 자녀의 학습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표 8. 부모의 이혼,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설명 변수	학습문제	대인관계문제	행동문제	불행감	신체적 증상	내면적 증세
	β	β	β	β	β	β
단계 1: 부모의 이혼	.119	.177*	.062	.061	.037	.061
단계 2: 부모효능감	-.067	-.061	-.089	-.117	.027	-.213**
단계 3: 민주적 부모역할수행	-.198**	-.166**	-.144*	-.145*	-.098	-.232***
권위주의적 부모역할수행	.002	.127*	.020	.087	.061	.043
R^2	.295	.356	.230	.278	.017	.384
F	5.789***	8.838***	3.402*	5.087**	1.05	10.487***

*** $p < .001$, ** $p < .01$, * $p < .05$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가 민주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할수록 자녀의 학습문제는 적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이혼, 부모효능감 및 부모양육수행이 설명변수로 포함된 회귀 모형은 자녀의 학습문제에 대하여 29.5%의 설명력($R^2 = .295, p < .001$)을 지녔다.

학령기 아동의 대인관계문제도 부모의 이혼은 부모의 양육변수가 회귀방정식에 함께 포함될 경우 그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이혼만을 회귀모형에 설명변수로 포함했을 때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큰 영향을 주나($\beta = .269, p < .001$)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이 설명변수에 포함될 경우 이혼이 갖는 영향력이 줄어들고($\beta = .177, p < .05$) 부모역할수행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민주적 부모역할을 수행할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줄어들고($\beta = -.166, p < .01$)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beta = .127, p < .05$). 한편,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문제와 대인관계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모의 이혼, 부모효능감 및 부모양육수행 변수는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의 35.6%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356, p < .001$).

같은 맥락에서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를 살펴보면 민주적 부모역할수행만이 아동의 행동문제($\beta = -.144, p < .05$)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 부모효능감 및 부모양육수행 변수는 자녀의 행동문제의 23.0%를 설명해 주고 있다($R^2 = .230, p < .05$).

학령기 아동의 불행감에 미치는 이혼의 영향 역시 양육변수가 설명변수로 함께 포함되면 단독변수일때 나타나던 영향력($\beta = .169, p < .01$)이 사라지고($\beta = .061, NS$) 민주적 부모역할 수행만이 아동의 행동문제($\beta = -.145, p < .05$)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불행감에 미치는 부모효능감의 영향을 살펴보면, 이혼과 함께 회귀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나($\beta = -.162, p < .05$) 부모역할수행이 설명변수로 투입되면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beta = -.117, NS$).

아동이 지각한 내면적 증세의 경우 역시 단순

회귀모형의 단계에서는 이혼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나($\beta = .221, p < .001$), 부모효능감이 설명변수로 들어간 모형에서는 이혼이 지닌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고($\beta = .097, NS$) 부모효능감($\beta = -.258, p < .001$)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역할수행이 설명변수로 포함된 표 8을 보면 부모효능감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줄어들고($\beta = -.213, p < .01$) 민주적 부모역할수행($\beta = -.232, p < .001$)이 강한 영향을 지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이혼, 부모효능감 및 부모양육수행 변수가 설명변수로 포함된 회귀모형은 자녀의 내면적 증세의 38.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384,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혼부모의 양육에 대한 변인이 자녀의 바람직한 적응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가정하고 이혼가정의 부모와 양부모가정의 부모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이혼을 경험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가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가정의 부모는 부모효능감이 양부모가정의 부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혼 후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부모의 역할과 과업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과 믿음이 양부모가정의 부모에 비해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를 비롯한 자녀의 주변사람들이 자신의 양육행동에 협조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낮아지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Bandura, 1995).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이혼한 부모의 부모효능감을 저하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의 이혼가정 부모

와 양부모가정 부모는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요인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대상자의 표집을 통한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부모역할수행을 보면, 이혼가정 부모는 양부모가정 부모에 비해 민주적인 부모역할(authoritative parenting)을 수행하는 정도가 낮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authoritarian parenting)을 수행하는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이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oleman & Karraker, 1997).

이혼가정 부모와 양부모가정 부모가 지닌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이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분석 결과는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 모두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남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점수가 낮아졌지만 여아는 이와 반대로 올라간 것을 볼 때 이혼가정의 여아는 커가면서 부모의 통제와 감독을 남아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혼가정의 부모는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더욱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나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혼을 경험한 어머니는 여아의 경우 더욱 조심스럽게 기르려는 의도에서 권위주의적 양육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부모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발달단계의 자녀 조사를 통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이 문제행동·정서적 적응과 내면적 증세(우울증, 근심 등)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 연구 결과는 이혼가정 아동이 양부모가정 아동에 비해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더 많이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을 비교할 때 이혼가정 아동은 학습문제, 대인관계문제, 행동문제, 불행감 등에서 양부모가정 아동보다 더 문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증세는 두 집단의 아동이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보경, 2001; 오은순, 1997; 지은선, 2002; Amato, 2000). 한편 신체적 자각 증세에 이혼가정 아동과 양부모가정 아동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이혼이 주로 심리적·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이 스스로 지각한 내면적 증세를 알아본 연구 결과도 이혼가정 아동은 우울정서, 흥미상실, 자기 비하의 정도가 양부모가정 아동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평가한 불행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혼가정 아동은 교사가 볼 때나 스스로 생각할 때나 양부모가정 아동보다 우울하고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잃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이혼가정 아동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이러한 내면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학령기 자녀의 문제행동·정서적 적응과 내면적 증세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정서적 적응과 내면적 증세는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는 부모가 지닌 부모역할수행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3가지 회귀모형을 비교한 결과 부모의 이혼은 다른 양육변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될 때 대인관계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아동의 적응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효능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아동의 불행감과 내면적 증세로 나타났고 다른 적응변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효능감이 낮은 부모가 우울증이나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아동에게 전이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Coleman & Karraker, 1997).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적응 영역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으로 나타나 이혼여부보다는 부모의 양육형태가 이혼 후 자녀 적응에 중요한 변수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Hetherington, Cox, & Cox, 1982; Hetherington, Briges, & Insabella, 1998; 정현숙 1998). 한편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이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서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인관계문제에서만 나타나 이는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상기하게 한다. 동양문화권의 부모가 수행하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의 의미와 이를 받아들이는 자녀의 태도는 서양문화권과 달라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비교문화적 양육이론이 유용한 설명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Chao; 2001). 즉 유교적 동양문화의 맥락에서는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이 다스림이

나 훈련의 의미로 이해되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서구사회의 경우와 같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나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수행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사회의 부모양육은 전통적 유교 문화와 서양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가정 아동은 양부모가정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정서적 적응 및 아동이 지각한 내면적 증세에 더 많은 문제를 보이거나 이는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는 이혼으로 인한 부모효능감 저하와 민주적인 부모양육역할수행의 상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혼부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적절한 복지대책과 상담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혼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을 높이고 부모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및 상담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이혼부모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제한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표집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아동 선택이 연구결과에 체계적인 오차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학급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예비조사 결과 전체 아동에 대한 교사의 설문지 작성이 어렵고 이혼가정 아동의 연구라는 본 연구의 특성상 적절한 대상자수 확보를 위한 대량조사를 하려면 경제적 및 시간적 비용상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가 동수의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아동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선입견이나 주관적 판

단이 영향을 미쳐 연구결과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는 부모의 협조가 가능한 아동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혼 후 적응이나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가정 부모나 저소득층 이혼가정의 부모 등 학교·가정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는 연구자 선정에서 일차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차후 연구는 연구대상자 표집시 보다 대표성이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 이혼가정을 포함하여 이혼가정의 다양한 경제상태가 부모양육변수와 자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가 이혼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은 부모로 연구대상을 정하여 실제 연구에 어머니만이 포함된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이다. 그러나 자녀적응에 대한 부모양육변수를 알아보는 연구 목적상 동거자 및 주된 양육책임자로 연구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이혼가정의 주된 양육책임자가 아버지일 경우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연구에 포함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추후연구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여러 상황변수(이혼의 원인, 이혼 시기, 이혼과정 등)에 따라 이혼 부모의 양육시 상호협조나 아동의 적응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Baum,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변수를 고려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이혼가정의 연구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

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 후 발생한 가족 구조나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적응이나 내면적 증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혼가정의 가족구조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고 아동의 동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부모가 지닌 부모효능감과 실제 부모역할수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아동의 보이는 문제행동·정서적 적응과 내면적 증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부모의 이혼여부와 양육변수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의 주된 책임자인 어머니에 대한 조사만을 토대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의 주된 책임자가 아버지거나 부모의 이혼 후 조부모나 친인척과 거주하는 아동들의 경우는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양육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앞으로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의 가족구조와 동거상황을 변수에 포함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로 연구결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부모들이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정서적 적응 및 내면적 증세는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는 부모의 양육역할수행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가족학연구회 편 (2003).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시

- 리즈 3;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 고성혜·한유진 (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 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20, 60-73.
- 김보경 (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삼 (1990). 정상가정 아동과 편부모 아동의 인성 특성 비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 (2002). 부모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순 (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 (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한국아동학회지, 13, 59-76.
- 정현숙·서동인 (1998). 편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자원 및 심리적 적응. 한국아동학회지, 18, 163-175.
- 주소희 (2002). 이혼가정자녀의 부모 이혼 후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121-145.
- 지은선 (2002). 학령기 정상가정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1, 2002). 인구통계연보.
- 황옥자 (1980). 부모의 이혼이 자녀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0, 82-92.
- Amato, P. R. (2000).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5). Exercise of pers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In A. Bandura (Ed.),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pp. 1-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m, N. (2003). Divorce process variables and the co-parental relationship and parental role fulfillment of divorced parents. *Family Process*, 42, 117-121.
- Block, J. H. (1981).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CRPR): A set of Q items for the description parental socialization attitudes and valu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 Chao, R. K. (2001). Extending research on the consequences of parenting style for Chinese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Child Development*, 72, 1832-1843.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Drapeau, S., Samson C., & Saint-Jacques, M. C. (1999). The coping process among children of separated par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1, 15-35.
- Dreman, S. (2000). The influence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2, 41-71.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pstein, M. H., Shama, J. (1998). *Behavioral and emotional rating scale*. Austin, TX: Pro-Ed.
- Gilman, S. E., Kawachi, I., Fitzmaurice, G. M., & Buke, S. L. (2003). Family disruption in childhood and risk of adult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5), 939-1006.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Hetherington, E. M., Bridges, M., Insabella, g. M. (1998). What matters matters? What does not? Five perspectiv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transitions and children's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67-184.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E. Lamb, 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p. 233-288. Hillsdale, NJ: Erlbaum.
-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M. (1999).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 risk and resilienc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129-140.
- Kochanska, G. (1990). Maternal beliefs as long-term predictors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report. *Child Development*, 61, 1934-1943.
- Kovacs, M. (1981). *Rating scale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 Leon, K. (2003).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parental divorce: A review of the research. *Family Relations*, 52(3), 258-271.
- Linker, J. S., Green, A. L., & Stolberg, A. L. (1999). Family communication as a mediator of child

- adjustment to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0, 82-96.
- Mazur, E., Wolchik, L. V., & Sandler, I. N., West, S. G. (1999). Cognitive moderators of children's adjustment to stressful divorce events: The role of negative cognitive errors and positive illusions. *Child Development*, 70, 231-245.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
- Pett, M. A., Turner, C. W., Vaughan-Cole, B., Wampold, B. E. (1999). Paths of influence of divorce on preschool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145-164.
- Saylor, F., Spirito, T., & Bennett, B. (1984).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systematic evalu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6), 955-967.
- Segel, I. E., McGillicuddy-deLisi, A. V., & Goodnow, J. J. (Eds.) (1992).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Hillsdale, NJ: Erlbaum.
- Wallerstein, J. S. (1985). The overburdened child: Some long-term consequences of divorce. *Social Work*, 30, 116-123.
- Wallerstein, J. S., & Blakeslee, S. (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ew York: Ticknor & Fields.
- Warshak, R. A., & Santrock, J. W. (1983). Children of divorce: Impact of custody disposition on social development. In E. J. Callahan & K. A. McClusky, eds.,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Non-normative life events*, pp. 241-263. New York: Academic Press.

The Effects of Parental Efficacy and Practic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 Study of the Children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ies

Hae Seung Le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oon Hyung Yi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sing a sample of 248 school-ag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parental efficacy and practices between divorced and non-divorced mothers. Also, this study examine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internalized symptom of children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ies. Results suggest that divorced mothers have lower parental efficacy and show more auth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than non-divorced mothers do. Generally,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show more adjustment problems than children from non-divorced families. Differences in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between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ies can be explained by parental efficacy and practices. Discuss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addressed.

Keywords: parental efficacy, parental practices, behavioral problem,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internalized symptom